

크로아티아 EU 가입의 의의 및 시사점

이철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cwlee@kiep.go.kr, Tel: 3460-1071)

차 례 ●●●

1.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동향
2. 크로아티아 경제개황과 한국과의 관계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구(舊) 유고내전과 코소보 사태 이후 서발칸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EU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함.
 - EU 시장 접근성 강화, EU 기금의 지원, 규모의 경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은 분명 크로아티아가 EU 가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임에 분명하나, 인근 비EU 회원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EU 차원의 개혁요구 수용 등은 향후 크로아티아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임.
- ▶ 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40만 명, PPP 기준 1인당 GDP 약 1만 8,000 달러, 명목 GDP 규모 약 600억 달러 정도의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함.
 - 크로아티아가 EU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EU 평균의 약 61%로 2007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보다 훨씬 높으며, 2004년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 오랜 숙원이던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는 당분간 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 EU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디레버리징 추세 지속에 따른 투자 부진 등으로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명목상 이미 EU 선진국에 개방되어 있던 크로아티아 시장이 한EU FTA에 의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EU 시장으로 개방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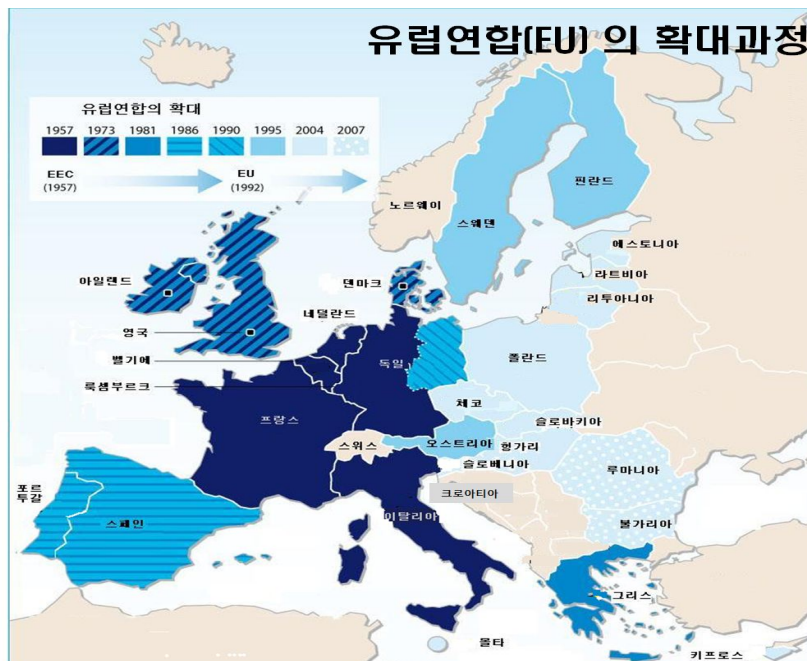
1.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동향

- **(크로아티아 EU 가입의 의의)**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EU 회원국 수가 1개국 증가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구(舊) 유고내전과 코소보 사태 이후 서발칸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EU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함.
 - 1990년대 구유고내전과 코소보 사태를 경험한 서발칸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EU는 전범처리 협조, 소수민족 문제 해결, 발칸지역 안정과 평화정착 기여 등을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협상과 연계함.
 -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EU 가입협상의 진전을 위해 세르비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¹⁾
 -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EU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것으로 평가됨.
 - 2004년과 2007년의 제5차 EU 확대²⁾에서는 31개 항목에 걸쳐 EU 가입협상이 이루어진 데 반해,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보다 세분화된 35개 항목에 걸쳐 가입협상이 진행됨.
 - 또한 5차 확대까지 적용되었던 미진한 부분 개혁의 향후 이행여부 점검을 전제로 하는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항³⁾은 크로아티아에 적용되지 않음.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과정)** 1990년대 체제전환 이후 크로아티아는 2009년 4월 NATO 가입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정착과 발칸 지역에서의 불안정한 국가적 지위 극복 및 안보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EU 가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2003년 EU 가입 신청 이후 2005년부터 EU 가입협상에 본격 돌입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 가입협상을 종료함.
 - 2011년 12월 9일 EU 가입협정 서명으로 2013년 7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공식화되었으며, 이후 크로아티아는 2011년 12월 국민투표를 실시, 56%의 지지로 EU 가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침.
 - EU 가입협상 과정에서 슬로베니아와 아드리아 해안 경계 분쟁과 어업협정 체결에 난항을 겪은 바 있으며, 사법 및 경쟁정책 등 몇 가지 과제는 협상 마무리 단계까지 이행 정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짐.
- **(EU 가입의 편익과 비용)** EU 시장 접근성 강화, EU 기금의 지원, 규모의 경제,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은 분명 크로아티아가 EU 가입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편익임에 분명하나, 인근 비EU 회원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EU 차원의 개혁요구 수용 등은 향후 크로아티아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임.

1)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는 정상외교를 통해 구유고연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과거 인종 학살과 공격에 대한 사과, 세르비아의 EU 가입지지 천명 등을 통해 이 지역의 화해 정서 정착에 기여함.
 2) 2004년 5월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키프로스 등 10개국이 EU에 가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추가로 EU에 가입함.
 3) 동 조항에 의거하여 EU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사법개혁, 부패척결, 식품안전강화, 차량보험제도 개선, 돈세탁 방지 및 항공기 안전조치 강화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2007년 3월까지 제출하고 2008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조건하에 EU 가입을 허용한 바 있음.

-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계기로 경제·사회 분야 전반에서 급격한 진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자국 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함.
 -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보유한 EU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환경개선과 위험 감소를 통해 선진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시장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크로아티아의 근본적인 EU 가입의 목적임.
 - 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크로아티아의 산업구조로 인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EU 가입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EU의 공동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EU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인근 비EU 회원국인 발칸 국가들과는 관세장벽을 비롯한 유·무형의 새로운 장벽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옴.
 - EU 전반의 경기침체로 최근 크로아티아의 교역은 인근 발칸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CIS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접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EU 확대 현황



유럽연합의 확대

- 1957 :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Europe-6)
- 1973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Europe-9)
- 1981 : 그리스 (Europe-10)
- 1986 : 스페인 포르투갈 (Europe-12)
- 1995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rope-15)
- 2004 :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Europe-25)
- 2007 : 불가리아, 루마니아 (Europe-27)
- 2013 : 크로아티아 (Europe-28)

자료: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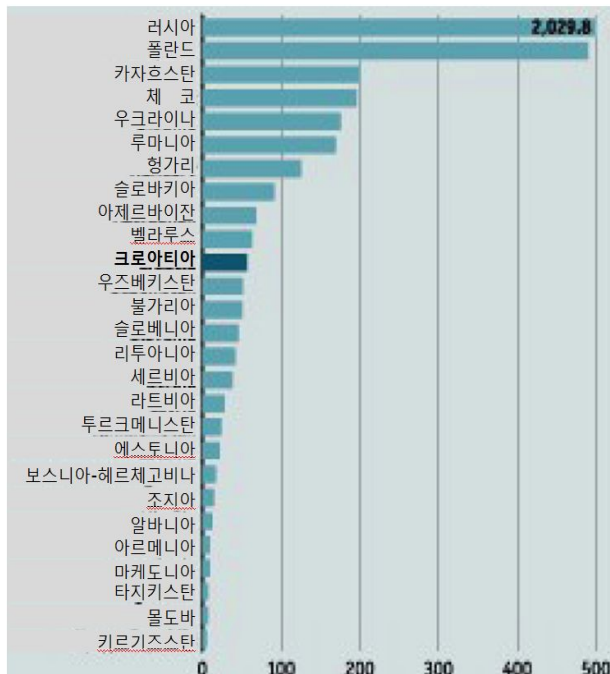
2. 크로아티아 경제개황과 한국과의 관계

- (크로아티아 경제개황) 크로아티아는 인구 약 440만 명, PPP 기준 1인당 GDP 약 1만 8,000 달러, 명목 GDP 규모 약 600억 달러 정도의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를 지향함.
- 크로아티아가 EU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EU 평균의 약 61%⁴⁾로 2007년 EU에 가입한 루마니아, 불가리아보다 훨씬 높으며, 2004년에 가입한 폴란드, 헝가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크로아티아는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자본 유입으로 보전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특성으로 대외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00년대 들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8년에는 60억 달러를 초과하여 GDP 대비 8.7%에 이르렀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며, 2012년에는 소폭 흑자를 기록함.
- 2006년 297억 유로 정도였던 대외 부채는 최근 460억 유로에 육박하여 2009년부터 GDP 대비 100%를 초과함.

그림 2. 크로아티아 GDP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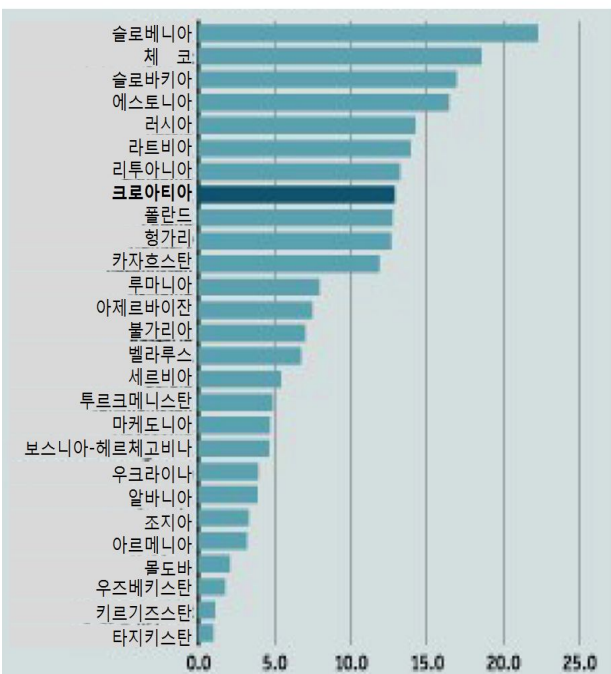
(단위: 2012년 시장환율 기준, 10억 달러)



주: 인근 중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 및 CIS 국가들과 비교
자료: EU(July 2013).

그림 3. 크로아티아 1인당 GDP 비교

(단위: 2012년 시장환율, 달러)



자료: EU(July 2013).

- **(최근 경제현황)** 크로아티아 경제는 발칸지역 정세 안정과 EU 가입 추진 등으로 2000년대 들어 5~6%대의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더블딥에 고전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까지 유고내전의 여파에 고전했던 크로아티아 경제는 EU 경제로의 편입을 위해 적극적인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을 달성함.
 - 크로아티아의 FDI 유입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EU 가입협상에 돌입한 2005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 코소보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마지막 신흥시장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부각되어 2000년대 들

어 발칸 국가들에 대한 FDI 유입이 본격화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한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1년 들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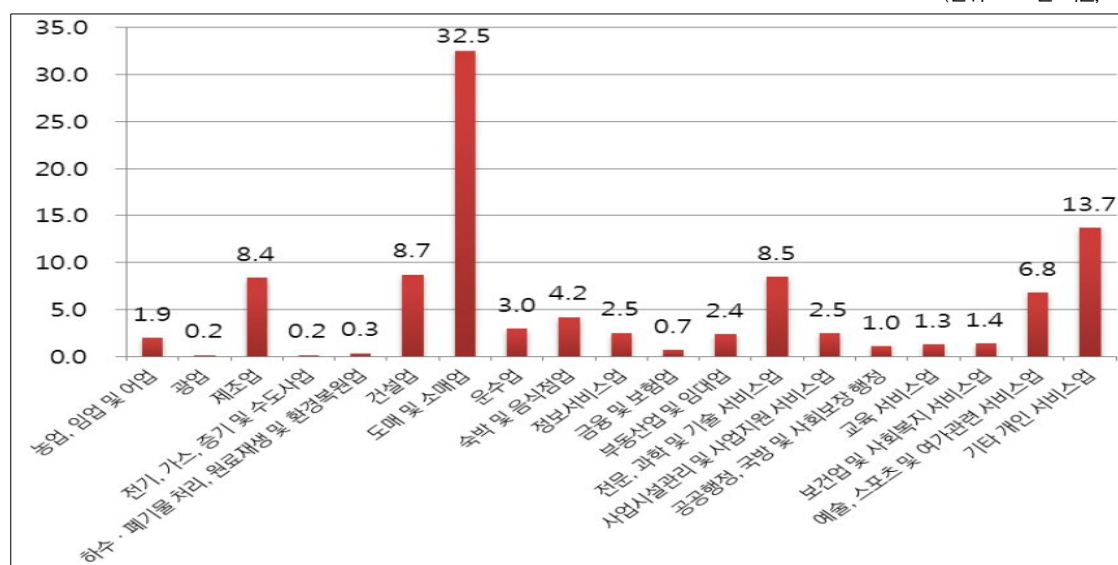
표 1. 크로아티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10억 달러, 경상가격)	50	59	70	62	59	62	56
GDP 성장률(%)	4.9	5.1	2.1	-6.9	-2.3	0.0	-2.0
1인당 GDP(달러)	11,240	13,407	15,755	14,095	13,356	14,061	12,874
실업률(%)	11.4	9.6	8.4	9.2	11.9	13.5	15.9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	3.2	2.9	6.1	2.4	1.0	2.3	3.4
재정수지(% 국내총생산 대비)	-1.5	-1.0	-0.8	-3.3	-4.5	-4.7	-3.3
경상수지(% 국내총생산 대비)	-6.5	-7.3	-8.7	-4.9	-1.5	-0.7	0.1
경상수지(백만 달러)	-3,233	-4,328	-6,078	-3,043	-856	-413	36
연평균 환율(쿠나/달러)	5.84	5.37	4.93	5.28	5.50	5.34	5.85
연평균 환율(쿠나/유로)	7.32	7.34	7.22	7.34	7.29	7.43	7.51
수출(백만 달러)	10,607	12,573	14,370	10,695	12,020	13,622	12,572
수입(백만 달러)	21,131	25,556	30,087	20,735	19,631	22,208	20,303
대외 부채(% 국내 총생산 대비)	74.8	77.7	85.4	101.0	103.6	101.8	n/a
대외 부채(백만 유로, 연말 기준)	29,725	33,721	40,590	45,244	46,483	45,734	n/a
외환보유고(백만 유로, 연말 기준)	8,725	9,307	9,121	10,376	10,660	11,195	n/a

자료: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재무부, Global Insight(2013. 6. 10 update) 종합.

그림 4. 크로아티아의 산업별 GDP 비중

(단위: 2012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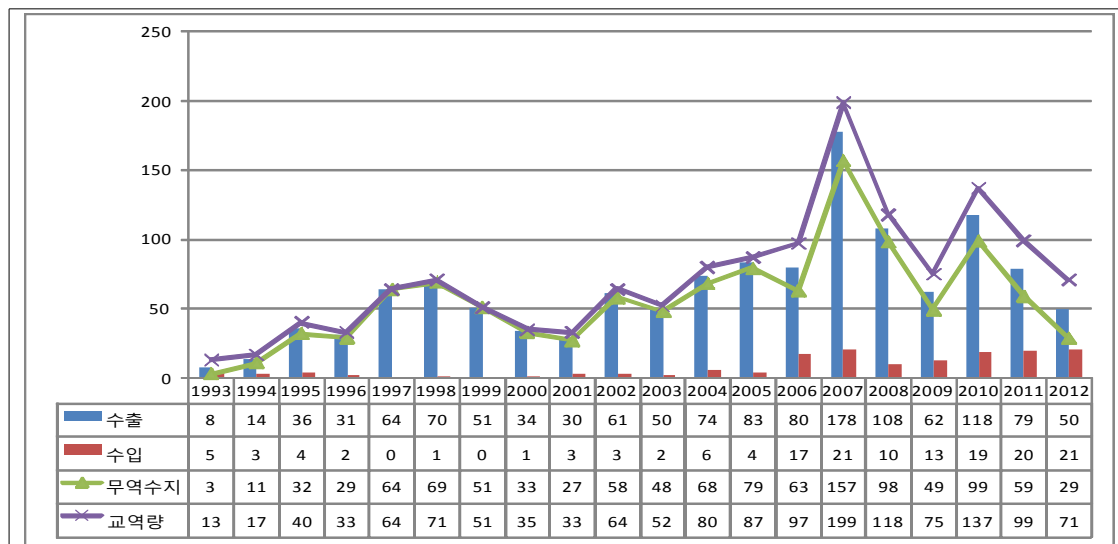


자료: 크로아티아 통계청.

- **(주요 산업 및 구조적 특성)** 크로아티아는 해운 거점과 천혜적인 관광자원 등으로 도·소매업,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반면,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 기준 도·소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크로아티아는 인구 천 명당 쇼핑센터 면적이 유럽 평균인 190m²를 훨씬 초과한 250m²에 달함.
 - 1,778km 길이의 아드리아 해안, 1,246개 섬과 지중해성 기후 등의 이점으로 크로아티아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관광 국가 중 하나임.
 - 크로아티아는 체제전환기의 혼란, 구유고내전, 코소보 사태 등으로 제조업 기반 마련에 실패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제조업 분야로 조선, 섬유, 금속, 목재 및 종이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5.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과의 관계)** 2012년 기준으로 크로아티아는 한국의 123번째 수출상대국으로 대크로아티아 수출이 총수출의 0.004%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에서도 크로아티아는 한국의 126번째 수입상대국으로 총수입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투자 실적도 극히 저조함.
- 1992년 11월 수교 이후 시작된 양국간 교역은 발칸지역의 정세불안으로 2000년대 초반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협상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들어 급격하게 확대됨.
 - 대크로아티아 수입 실적이 극히 미미한 가운데 대크로아티아 수출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이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함.
 - 이에 따라 우리의 대크로아티아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흑자규모가 최대 1억 5,700만 달러에 달함.
 - 2007년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1억 7,8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간 교역규모도 사상 최대치인 2억 달러에 육박함.
 - 2008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양국간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전 세계를 휩쓴 2009년에 1억 달

- 러 미만으로 급격하게 축소되었으며, 2010년에 다소 회복되었다가 2011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임.
- 2010년 이후 대크로아티아 수입 규모는 소폭 상승을 기록,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최근 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 2010년 1억 1,800만 달러까지 회복되었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2011~12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결과, 2012년에 5천만 달러까지 축소됨.
- 품목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의 수출은 2~3개 주요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1~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매년 변화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우리의 대크로아티아 수출은 합성수지(MTI 214)와 자동차(MTI 741)가 각각 22%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철강판(MTI 613)이 14%를 점하고 있음.
 - 수입의 경우 종이제품(MTI 252)이 33%를 점하여 최대 수입품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나머지 품목들은 매년 수입실적이 급변하는 등 아직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1	214	합성수지	41	35.4	11	-72.9	22
2	741	자동차	7	46	11	43	22
3	613	철강판	9	5,580.8	7	-13.8	14
4	41	어류	0	-	2	348.3	4
5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	-97.7	2	10.4	4
6	228	정밀화학 원료	1	-15.2	2	17	4
7	252	종이제품	2	296.7	1	-23	2
8	813	컴퓨터	1	109.6	1	40.7	2
9	310	플라스틱 제품	2	-36.7	1	-17.7	2
10	812	무선통신기기	0	-75.6	1	220.6	2
총 계			79	-32.6	50	-37.3	100

주: MTI 3단위 2012년 수출금액 기준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3.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3단위)	품목명	2011년		2012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점유율
1	252	종이제품	5	42.4	7	28.6	33
2	812	무선통신기기	0	-96.8	3	265,355.3	14
3	45	어육 및 어란	2	114.7	2	45.1	10
4	13	식물성 물질	0	-	2	-	10
5	41	어류	2	241.3	2	-24.5	10
6	833	수동부품	2	11.7	1	-5.9	5
7	441	의류	1	-30.4	1	-13.3	5
8	831	반도체	0	-27.1	1	50.7	5
9	711	원동기 및 펌프	2	-68.1	0	-84.5	0
10	243	유리제품	0	23,819.7	0	438.6	0
총 계			20	4.9	21	2	100

주: MTI 3단위 2012년 수입금액 기준 순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의 경제정책 과제)**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추진해야 할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①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② 국영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③ 수출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로아티아 정부는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공항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공공부문의 투자증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전년대비 11.5% 증가한 9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는 민간부문의 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4~20년에는 EU 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
- 1990년대 체제전환기에 구유고내전과 코소보 사태가 겹쳐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바, EU 가입 이후 반드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 최근 크로아티아 정부는 주요 국영 제철소 및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 중이며, 은행 및 보험 부문 등에 대한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는 인근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정부부채 부담 완화와 공공부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과감한 국영기업 민영화가 필요한 시점임.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크로아티아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설정, 추진함.
 - 크로아티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이며, 공정 과정에서 신규 부가가치 창출비율이 높아 생산 및 수출 증가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주요 투자우대 분야로 선정하고 있음.
 - 2007년부터 크로아티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총 20개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중 6개가 수출 기업 중심의 수출 클러스터임.

■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 경제 전망)** 오랜 숙원이던 EU 가입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경제는 당분간 경기침체 및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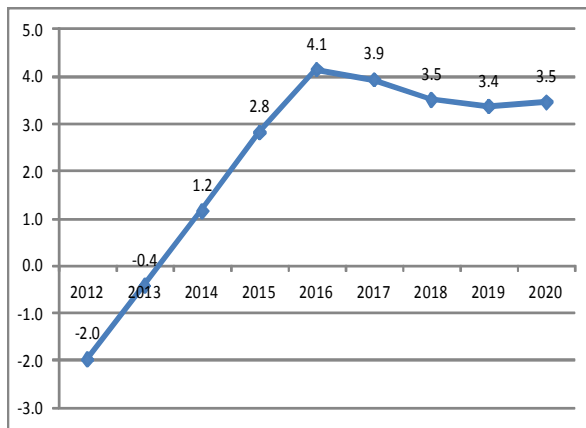
- EU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디레버리징 추세 지속에 따른 투자 부진 등으로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⁵⁾
 - EU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인근의 그리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경제상황이 아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은행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은행들의 디레버리징 진행으로 2010년에 급격하게 외국자본이 유출된 바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최근 다시 디레버리징이 진행됨.

5) Global Insight(2013. 6. 10 update).

- 크로아티아 경제는 2013년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상기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여부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고질적인 무역수지 및 경상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및 대외채무 부담 등 거시경제에 취약점을 안고 있는 크로아티아 경제는 상기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EU 가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시장경제체제 정착, 정부부문 축소 및 비효율성 개선, 관료주의 및 부패 척결 등을 포함한 경제구조 개혁이 관건임.

그림 6. 크로아티아의 중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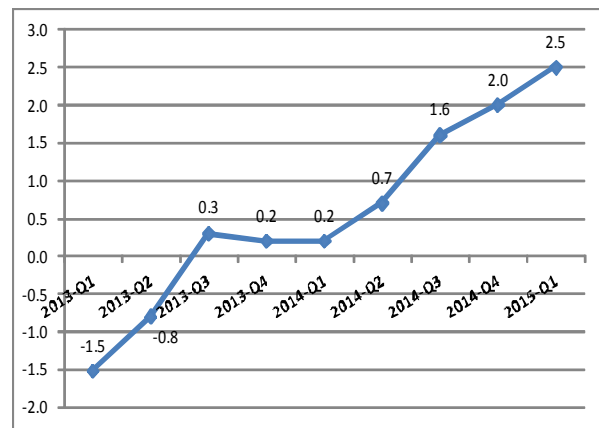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Global Insight(2013. 6. 10 update).

그림 7. 크로아티아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Global Insight(2013. 6. 10 update).

- **(향후 EU 확대 전망)** 이번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EU 측의 가입협상 진행은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전망됨.
- 마케도니아와 최근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세르비아가 향후 EU 가입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등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임.
 -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세르비아는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가 EU 가입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이며, 나머지 서발칸 국가들은 상기 2개국에 비해 EU 가입협상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크로아티아의 EU 가입협상이 철저한 개혁 이행여부 점검과 함께 이루어진 점과 세이프가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EU 확대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EU 회원국 대부분이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가입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터키의 EU 가입협상 진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겠지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명목상 이미 EU 선진국에 개방되어 있던 크로아티아 시장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EU 시장으로 개방되는 것을 의미함.

- 한국과 크로아티아 양국간 교역비중이 아직 미미하지만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함으로써 한·EU FTA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리의 FTA 대상국으로 추가됨으로써 관세인하 효과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크로아티아는 전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평균 약 3%)이 낮고 원부자재 및 기계류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0%의 관세율 적용 원칙으로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임.
- 우리의 주요 수출품 중 TV, 휴대폰 등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자동차(8%), 안경테(5%) 등에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바, 이러한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
- 크로아티아는 SAA⁶⁾에 의해 EU와 이미 대부분의 공산품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EU 교역비중이 69%에 달해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KIEP

6) 2001년 10월 체결되고 2005년부터 발효된 크로아티아와 EU의 안정화 협약(SA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